

社會體制計劃理論序說(I)

權 泰 俊*

目 次

- I. 計劃一般理論의 必要
 - (1) 科學的 知識(Scientific Knowledge)의 實踐的 活用 方法論定立의 必要
 - (2) 社會問題 解決을 爲한 「科學的 諸 方法」(Scientific Methods)의 交互受精(Cross-fertilization)의 功過를 評價하기 爲한 基準 定立의 必要
 - (3) 社會的 行動의 質의 評價를 爲한 一貫性인 基準의 定立 必要
- II. 社會體制 計劃 理論의 領域(Domain)
- III. 合理的 行動 準則
 - (1) 社會的 行動의 質과 合理性
 - (2) 目的一手段의 連鎖(End-Means Chain)論理
 - (3) 合理性和 社會工學(Social Engineering)
- IV. 計劃의 形態(Forms)와 知識의 量과 質
 - (1) 最善의 行動
 - (2) Punctiform Certainty-Decomposability 와 部分 適正化(Sub-optimization)
 - (3) “體系”(System)와 綜合計劃(Comprehensive Planning)

I. 計劃一般理論의 必要

(1) 科學的 知識(Scientific Knowledge)의 實踐的 活用 方法論 定立의 必要

우리 世代는 거의 모든 社會的 行動의 事前的 準備 作業, 即 「計劃」에 엄청난 量과 多樣的 知識과 技術을 動員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고 있다. 「計劃」은 이제 거의 모든 部門에 있어서——例를 들어서 한 家庭의 子女들의 教育 計劃에서 부터 한 政府의 國家發展計劃에 이르기까지——단순히 日常的인 知慧(wisdom)에 依한 深思熟考가 아니고 「知識」(knowledge)과 「技術」(technology)의 體系의이고 組織的인 實踐的 活用을 圖謀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量 그리고 더 正確한 「知識」이 投入될 수록 우리의 社會的 行爲의 質은 더 좋아지리라는 期待를 하게 되었다. 「知識」은 이제 行動(action)을 生産해 내는데 必要한 第一次的인 生産要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副教授

- (1) 知識과 行動과의 關係에 對한 古典的인 생각은 그 關係를 全的으로 否認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좀더 間接的인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即, 知識이 곧 社會的 行動의 質을 決定하는 因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知識은 社會的 行動의 主體인 人間의 人格과 品性에 무엇인가의 影響을 끼침으로써 社會的 行動에 間接的인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把握되었다. 다시 말해서 知識과 行動間에는 人間이라고 하는 中間變數(intervening variable)가 있었다.

이와 같은 傾向과 함께 「知識」探究의 業인 「學問」(sciences)의 모든 分野가 그 實踐的 有用性을 認定받게 되었고, 그와 同時에 「學問的 方法論」(scientific methodology)——即, 「知識」探究의 方法論——의 論理가 實踐的 行動設計의 方法을 規定짓게 되었다. (2)

經濟學者, 社會學者등에서 부터 物理學者, 生物學者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研究室 또는 實驗室에서 習得하고 鍊磨한 「知識」과 「方法」을 들고 나와서 그것으로써 무엇인가 實踐的 功獻을 할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그들 各者의 專門 分野의 方法論과 技法으로써 社會문제에 대한 效果의인 解決策을 作成해 낼 수 있다고 主張한다. 그래서 經濟學에서는 國家의 經濟開發計劃의 方法論이 導出되고, 社會學, 人口學등에서는 家族計劃의 方法論, 教育學, 心理學등에서는 教育計劃의 方法論등이 導出될 수 있다고 믿고들 있다. 現代社會는 「專門家」들의 무대라고 하는 것은 正녕 저와 같은 現象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科學的」인乃至 「學問的」인 知識과 그 探究의 論理는 과연 그대로 實踐的 有用性이 있는 것인가? 不然이면, 「知識」과 社會的 行動과의 關係는 과연 무엇인가? 專門化되어 가는 知識 探究作業의 方法만큼이나 實踐的 行動 計劃의 方法도 多樣化하고 專門化되어야 하는가?

위와 같은 一聯의 疑問에 대한 解答은 專門化된 어느 한 分野의 知識體系에서 얻어질 수 없다. 그것은 知識과 社會的 行動의 一般的인 關係에 관한 探究으로써 究明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와 같은 문제에 대한 解答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基本的인 命題(propositions)와 假說들을 導出해 낼 수 있는 一般 理論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곧 오늘날의 「計劃의 一般理論」의 第一次的인 存在 理由(raison d'être)라고 생각한다.

(2) 社會問題 解決을 爲한 「科學的 諸 方法」(Scientific Methods)의 交互受精 (Cross-fertilization)의 功過를 評價하기 爲한 基準 定立의 必要

위에서도 言及한 바이지만, 오늘날 科學(science)의 거의 모든 分野가 社會的 行爲 設計에 무엇인가 功獻할 수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例를 들어 生物學은 遺傳 因子의 秘密을 究明함으로써 疾病없는 社會를 만드는데 寄與할 수 있고, 工學은 社會組織들로 하여금 機械體系(machine system)처럼 自動抑制裝置를 통해서 그들의 目的 達成을 하게끔 設計할 수 있다고 하며, 物理學의 重力法則은 두 都市間의 人口의 移動現象을 說明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人工衛星을 軌道를 따라 目標에 보내도록 하는데 有用한 技法이 國家의 經濟開發計劃 推進 戰略을 作成하는데도 有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D.N.A의 生物學的 觀念에 對해서 神學的 意味를 賦與하려는 努力도 있으며, 사람들의 交通을 두 地點의 人口의 量으로써 說明하려고들 한다.

(2) 그래서 우리는 現代의 「計劃論」을 知識과 行動의 關係를 研究하는 努力이라고 把握할 수도 있다. John Friedman, *Retracking America*, New York: Anchors, 1973; John Friedman and Barclay Hudson, "Knowledge and Action: A Guide to Planning Theory", JAIP, 1974, 1 參照.

이와 같은 傾向에 當面해서, 間或 이른바 「對象」의 特殊性에 依據한 反撥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反撥들은 大概 研究活動上의 管轄權(jurisdiction)에 관한 爭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例를 들어서 傳統的으로 「社會學者」들이 關心을 가지고 研究하고 있던 문제에 對해서 物理學者들이 曰可曰否하는 것을 願치 않는 態도와 같은 것등이었다.

오늘날 社會가 學問的 知識과 方法論의 實踐的活用과 관련해서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저와 같은 學界內部的 制度化된 專門領域 區分의 妥當性 與否는 아니다.

그것은, 좀더 根本的으로, 어느 專門分野에서 開發된 것이든, 어떤 概念, 어떤 方法論이 科, 社會문제에 對해서 實踐的 有用性이 있느냐 하는 基準에 依해서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基準은 다시 知識 一般과 社會的 行動과의 關係라는 次元에서 論究되어야 할 것이다.

우연히 또는 學界의 特殊한 發展 狀態때문에 어느 時點에서 어떤 專門分野의 paradigm 과 方法論이 優勢함으로써 모든 知識의 實踐的 活用方法이 그에 依해서 影響을 받게 될 수는 없다.⁽³⁾ 知識 探究 自體만의 論理的 體系를 爲해서가 아니고, 知識의 實踐的 活用을 爲해서라던 위와 같은 경우에 評價基準은 社會的 行動(social action) 一般의 屬性和 與件의 觀點에서 提示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評價基準을 定立하기 爲해서는 가장 높은 抽象化的 段階에서 行動과 知識의 關係를 규명하는 一般理論의 定立이 必要하다.

(3) 社會的 行動(Social Action)의 質의 評價를 爲한 一貫性있는 基準의 定立 必要

專門化된 知識 探究가 그 實踐的 應用에 있어서, 社會的 行動에 미치는 또 한가지의 重大한 影響은 行動의 選擇 基準의 多樣化이다.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目標에 따라서 어떤 行動過程(course of action)이 最善의 것인가를 選擇하는 基準은 多樣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와같은 基準의 多樣함이 必要한 까닭은 그 具體的인 行動이 處하게 될 與件과 그 行動에 反映되어야 할 社會的要求의 個別性 때문인 것이고, 그 行動設計의 技法이나 그에 必要한 知識의 屬性때문에 그러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本末顛倒의 事態를 흔히 본다.

가령 例를 들어서 「經濟學」的인 方法이나 知識이 主로 動員되는 경우에는, 行動 過程 選定의 基準에 있어 大體로 「效率性」(efficiency)에 優越한 價値가 賦與되고 이른바 「體系 理論」(systems theory)이라는 것에 魅惑되어 있는 사람들은 體系의 全體의 「均衡」이라는 것으로 事態 變遷을 評價하는 경우들을 본다.⁽⁴⁾

或者들은 말하기를,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基準으로써 提示되어 있을 뿐이고, 事實上 어느 것을 選擇하느냐는 結局 「選擇權者」(decision-maker), 即 行爲者의 決斷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 문제 自體는 知識과 行動과의 關係에 있어 重要한 論點이 될 수 없다고 하기도 한

(3) 오늘날 社會的 行動設計에 가장 有效하다고 믿어지고 있는 것은 工學的 理論과 方法임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4) 이 두가지 경우의 가장 適實한 現實的인 表現은 最近의 世界 各國에서 經濟的 物質的 成長을 主張하고 있는 者들과 生態系의 保全을 主張하는 者들의 끊임줄 모르는 意見對立에 나타나고 있다.

다. 그러나 知識體系는 그것 自體로써 合理的이고 論理的인 一貫性이 있는 것이어서 選擇權者에게 說得力을 가진다. 其實 知識을 探究하는 者들은 이와같은 說得力을 漸漸 더 強化하기 爲해서 努力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그들 各者의 專門 分野 知識의 說得力이 다른 어떤 分野의 그것보다 優勢하게 되기를 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行動過程을 選擇함에 있어서——多方面的 知識을 動員하면 할수록——混迷와 無謀와 挫折感을 體驗하게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社會的 行動과 知識 一般과의 關係를 규명함으로써 具體的인 與件과 個個의 實踐의 必要에 附應하는 行動選擇의 基準이 곧 導出될 수 있는 原則이 定立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知識探究의 各 專門 分野에서 提示되고 있는 基準의 適實性(relevancy)을 再評價해 볼 수 있는 一般的 基準의 定立은 切實히 必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은 一般的 基準의 定立은 다시 社會的 行動과 知識 一般과의 關係를 규명한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이 整理된 세가지 必要性 以外에도 專門的 知識人 또는 技術者들의 社會的 役割에 대한 行動 綱領 設定을 爲한 原則 定立, 多樣한 社會的 문제에 相應한 各種 計劃技法의 適合性 判斷 基準의 定立등을 爲해서 「社會體制 計劃의 一般 理論」이 探究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와같은 必要性을 모두 일일이 枚舉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가장 含蓄的이고 基本的인 것만을 列記하기로 하였다.

II. 社會體制 計劃 理論의 領域

이 자리에서 우리가 「計劃」의 概念에 관해서 論及하려는 것은 우선 本研究의 範圍 劃定을 爲한 大體的인 基準을 세워 보려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社會體制 計劃理論」의 領域을 知識과 社會的 行動間의 關係라고 暗示한 바 있다.

「計劃」(planning)이라는 것을 「知識」(knowledge)과 「行動」(action)間의 關係 現象으로 把握하려는 것은 우선, 첫째로 現代的 計劃의 가장 두드러진 特徵이 「科學的 知識」(scientific knowledge)의 實踐的 活用을 圖謀하려는 것임에 注目하기 爲해서이다. 앞서도 말한바 있지만 現代 社會에 있어, 「計劃」이라는 것이 가지는 意味는 日常的인 知慧에 依據한 單純히 用意周到한 行動의 事前的 準備라는 뜻 以上の 것이다. 그것은 動員되는 情報과 知識 그리고 技術등의 「科學性」의 確保에 그 第一次的인 意義를 發見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計劃된」 行動과 그렇지 않은 行動과의 差는 單純히, 前者는 미리 意圖된 바이고 後者는 即興的인 또는 即時的인 것——即 行動의 目標과 手段 또는 履行過程의 事前的 檢討가 있었느냐 與否——이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事前 準備 過程의 「合理性」乃至 「科學性」 與否라고 생각하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이다.

그래서 우리는 「知識」을 活用 또는 動員해서 社會的 行動의 設計를 試圖하는 것을 「計劃」

이라고 把握하고 이러한 現象을 우리의 研究의 對象으로 한다. 그리고 이 경우의 「知識」(knowledge)이라 함은 오늘날 一般적으로 認定되고 있는 「科學的」(scientific)인 知識 探究의 方法論的 實行에 따라서⁽⁵⁾ 얻어지는 情報 또는 技法을 말한다.

또 여기서 「社會體制」計劃 또는 社會的 行動이라고 함에 있어, 社會라는 修飾語는 計劃 또는 行動의 目的이 人間의 集團이라는 意味의 社會體制(social systems)에 어떤 變化를 招來하려는 경우에 우리의 研究 範圍를 限定지우자 爲한 것이다. 이와 같은 目的은 自明히 表白된 것일 수도 있고 含蓄의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그 目的은 第一次的(또는 直接的)인 것일 수도 있고 附隨的(또는 間接的)인 것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이 모든 경우를 다 包括해서 그 終局的으로 意圖된 바가 人間의 集團으로써의 社會體制의 機能 또는 構造에 무엇인가 變化를 招來하려는 것을 對象으로 한다. 어떤 計劃 또는 行動의 終局的인 目的이 社會體制의 變遷이라면 그 中間 目的(intermediate goal)이 設令 機械體制(machine system)의 製作이든 라도 그 計劃 또는 行動의 궁극적인 테스트는 社會體制 變遷을 爲한 計劃 또는 行動에 관한 一般理論의 領域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이 글에서 試圖할 수 있는 것은 序論的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序論的이라는 뜻은 몇개의 基本的인 命題(propositions) 또는 假說을 提示함에 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構成하려고 試圖하는 理論的 틀(theoretical framework)이 카버할 수 있는 現象의 全領域의 多樣하고 雜多한 狀態와 變數를 남김없이 一貫되게 說明할 수 있는 諸命題들의 體系를 提示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試驗的인 것임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우리가 提示하려는 몇개의 基本的인 命題와 假說들이 앞으로 이 分野 研究의 새로운 方向 提示의 攄은 하리라고 期待하고 있다.

Ⅲ. 合理的 行動 準則

(1) 社會的 行動의 質과 合理性

우리는 이 章에서 現代人들이 社會的 行動의 質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評價하기 爲해서 어떠한 思考方式과 基準에 依支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 그에 따른 計劃의 論理가 어떠한가를 밝혀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의 計劃의 諸技法 또는 理論들이 社會體制의 變遷 過程 그리고 그것과 知識과의 關係에 대해서 어떤 假說 또는 前提를 擇하고 있는가를 밝혀 보려고 한다.

社會變遷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 우리 世代를 그 前의 다른 모든 世代에 比해서 特徵지을 수 있는 것은, 社會變遷의 根本的인 動力을 人間의 理性(reason)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理性은 神에 依해서 주어 지는 것도 아니고, 「支配者」의 뜻도 아니

(5) 「知識」의 概念을 이와같이 定義함이 우리의 目的을 爲해서 妥當한 것임은 後述한다. 後述 Ⅲ章 「合理的 行動 準則」參照.

고, 普遍妥當한 事物의 「論理」(logic)에 依據한 思考의 法則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17世紀에 스피노자(Spinoza)가 存在에 관한 定理(axiom)로 부터 人間의 行動準則을 導出하려고 하였든 것에서 부터 위와 같은 意味의 「合理性」의 歷史가 始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合理主義的(rationalistic)傳統에 依支해서 우리는 存在(existence), 即 現象의 法則性을 알면 一定한 論理的 順序에 따라서 社會的 行動을 設計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事物에 관해서 더 많은 그리고 더 正確한 知識(knowledge)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合理的인 行動 過程(course of action)을 設計해 낼 수 있으리라고 期待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人間 集團 構成員들의 願하는 바(preferences)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알고 또 그들 相互間의 強度의 差(preference-ordering)을 알면 그 集團이 擇해야 할 最善의 合理的 行動을 處方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知識 또는 情報의 量과 質이 合理性(rationality)이라는 것을 통해서 社會的 行動의 質을 決定하고 있다. 그래서 行動의 經營·管理(management)는 곧 知識 探究 即 科學(science)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⁶⁾ 政治는 政治現象에 관한 知識의 蓄積에 따라서 더 合理的이 될 수 있고, 宗教도 宗教學의 發達에 依해서 더 改善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과 같다.

(2) 目的—手段의 連鎖(End-Means Chain)論理

위에서 든 例의 한 人間 集團의 preference-ordering 에 관한 知識에 依한 合理的 行動 過程 設計에 있어서, 우리는 그 願하는 바가 果然 正當한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知識의 實踐的 活用に 있어서 「合理性」이란 우리가 達成하려고 하는 目的의 合理性——이른바 「實質的 合理性」(substantive rationality)⁽⁷⁾——이 아니고 手段的 合理性(instrumental rationality), 即 주어진 目的의 達成을 어떻게 하는 것이 最善의 道인가를 判斷하기 위한 것이다. Herbert Simon의 말을 빌려서, 「合理性(rationality)이란 目的과 手段의 高리(end-means chain)를 만드는데 必要한 것이다.」⁽⁸⁾

「合理性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目的—手段의 論理的 關係와 同一視되게 된 것은 그 合理性의 內實을 이루는 知識이 經驗的 事實 發見의 方法論에 依해서 求得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最終의 目標」(final goal)를 選定하는 行爲는 「價値判斷」(value judgement)이고 그것은 오늘날의 「科學的 知識」探究의 方法論이 미칠 수 있는 것이 못된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날 「知識」을 內實로 하는 合理性이란 上位 目標과 次下位 目標間

(6) C. West Churchman, *Challenge to Reason*, New York: McGraw-Hill Co., 1968, pp. 102-103參照.

(7)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Free Press Paperback),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 260-263 參照.

(8) Herbert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 (A Free Press Paperback),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7, p. 62.

의 相互關係 또는 目標와 手段間의 關係를 決定지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即, 日常의 些少한 行動들이 어떤 經路를 通해서 「最終의 目標」에 連結되어 있는가를 探究함(知識)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願하는 바를 達成하기 위해서 어떻게(論理)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結局 「探究의 論理」(logic of discovery)가 行動 또는 管理의 論理(logic of management)의 內容을 形成하고 있다.

(3) 合理性과 社會工學(Social Engineering)

合理性이라고 하는 것이 以上과 같이 目標의 觀念이 前提되고 그것을 達成하기 爲한 手段選擇의 論理라고 把握되는 限, 合理的으로 計劃된 行動이란 결국 주어진 目標 達成을 爲해서 操縱(engineering)되어질 行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果然 오늘날의 社會 體制에 대한 各種 計劃들이 일이 成就된 然後의 狀態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親切히 알려 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장 能率의이고 效果의으로 關聯 變數와 對象 體制를 操縱해 갈 수 있는가에 더 많은 注意를 기울이고 있음을 본다. 그래서 「計劃」이란 저와 같은 動的인(操縱)過程(process)이라고 定義하는 것이 流行처럼 되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操縱 過程이 機械의 作動 過程처럼 技術的으로 精密한 스케들에 따라서 完全히 操縱者의 信號에 依해서 움직여질 때 우리는 社會計劃의 工學的 接近 可能性을 期待한다. 그것이 「技術」(technology)과 「知識」에 依한 操縱인 가답에 政治的으로 價値 中立의이고 문제는 오직 technological feasibility 뿐이라고들 생각한다.

오늘날 人間의 知識과 技術 能力이 모든 社會 體制 計劃에서 工學的 技法의 活用을 可能케 한다고 主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같은 뜻의 合理的 行動 設計가 궁극의으로 志向하는 바는 結局 「技術」——即, 實際的 効用性(utility)이 認定된 「知識」——에 依해서, 社會 體制 操縱의 實効性(effectiveness)을 擔保하려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技術에 依한 社會 體制 操縱의 實効性에 대해서 懷疑를 느끼면서 社會體制 計劃의 새로운 接近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工學的 接近에 對한 反論은 그 基底를 이루고 있는 이른바 社會發展에 對한 合理主義的 傳統(rationalistic tradition)에 대한 懷疑이기도 하다.

IV. 計劃의 形態(Forms)와 知識의 量과 質

(1) 最善의 行動

우리는 위에서, 現代의 合理主義的 傳統이 「科學的 知識」(scientific knowledge)에 依據해서 目的과 手段 連結의 當, 不當(appropriateness)을 判斷함으로써 어떤 行動의 質——即 合理性——을 評價하고 있음을 말했다. 이 章에서는 위와 같은 合理主義的 論理의 實踐的 變形들을 살펴 보고 變形들이 갖는 문제들을 좀더 細密히 分析해 보려고 한다.

前章에서 概觀한 바와 같은 合理主義의 論理에 依할 진대, 最善의 行動——即 客觀的으로 가장 合理的인 行動은——(1) 우선 주어진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모든 手段을 알아야 하고 (2) 그 各手段이 招來할 모든 結果(consequences)를 알아서 (3) 그 中에서 가장 效果的(effective)이고 能率的(efficient)인 手段을 選擇해서 實踐하는 것이다.⁽⁹⁾ 이 경우의 手段(alternatives)의 全數 그리고 그들 各各이 招來할 結果(consequences)豫測의 完全性등은 客觀的인 基準에 依한 判斷에 依한다. 어떤 個人이 어떤 條件下에서 알 수 있는 全部라는 것으로 滿足될 수는 없다. 「안다」는 것 또한 嚴格한 意味의 「科學的 知識」探究 方法에 依해서 그 validity와 reliability가 保障된 것을 뜻한다. 그래서 어떤 行動 設計가 위와 같은 要件을 充足했으면 그것은 絶對的으로 最善의 것으로 選擇된 行動이라고 評價된다.⁽¹⁰⁾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人間의 意識的인 行動 設計의 模型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2) Punctiform Certainty-Decomposability와 部分適正化(Sub-optimization)

社會體制 計劃에 있어서 前節의 基本 模型이 要求하는 바와 같은 知識 또는 情報需要(knowledge-information requirement)를 事實上 充足시킬 수 없는 경우가 許多하다. 때로는 人間의 知識 探究 能力의 限界때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成就하여야 할 일의 規模 또는 時間과 資源의 制約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合理主義의 論理가 우리에게 敎示하는 바는 目的 達成에 이르는 行動 過程을 細分化해서 知識 또는 情報需要의 量을 주어진 條件에 맞게끔 줄이라고 한다. 가령 例를 들어서 한 사람이 山의 頂上에서 부터 山 밑에 있는 집에 到達하는 最短時間거리를 알고자 하는 경우, 그 山의 全地形을 山頂에서 알 수 없으면, 우선 地形을 알 수 있는 地點까지의 最短時間거리를 計算해서 내려가고 그 地點서 부터 다시 다음 알 수 있는 地點까지의 最短時間거리를 計算하는 것과 같은 段階的이고 局部的인 最適化 行動을 取하면 된다는 것이다.⁽¹¹⁾

이와 같은 이른바 「部分 適正化」(sub-optimization)技法이 合理的이라고 생각되는 까닭은 探究되는 知識의 信賴度(level of confidence)는 그 知識의 對象인 現象 說明의 網(network of explanation)——即 理論의 網——이 細密하면 할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科學的 知識探究 方法論과 一致하기 때문이다.⁽¹²⁾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現象의 幅 또는 量을 줄이면 우리는 그것에 對해서 좀더 正確한 知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人爲的으로 統制된 實驗室 안에서 觀察하는 경우, 적은 數의 變數를 調査하는 경우, 또는 短期的인 效果를 測定

(9) *ibid.*, p. 67.

(10) M.P. Schützenberger, "A Tentative Classification of Goal-seeking Behaviors," in *Systems Thinking* (Penguin Modern Management Readings), Penguin Books, 1969, p. 206.

(11) *ibid.*, pp. 206-207; Yehezkel Dror, "Comprehensive Planning: Common Fallacies Versus Preferred Features," in F. Van Schlagen, ed., *Essays in Honor of Professor Jac. P. Thijssse*, The Hague: Mouton Co., 1967 參照.

(12) John R. Raser, *Simulation and Society: An Exploration of Scientific Gaming*,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71, pp. 33-34.

하는 경우 등이, 自然狀態에서 觀察하는 경우, 많은 變數를 對象으로 하는 경우, 또는 長期的인 效果를 測定하는 경우 보다 比較的 더 正確한 知識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이 해서 얻은 知識을 「適用」(apply)함에 있어, 그 知識 求得 節次에 內在했던 條件들을 넘어서 妥當性を 認定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現象 分析의 方法論과 그 結果의 實踐의 適用間의 論理的 連關을 가장 體系의 으로 試圖한 것으로써, Herbert Simon, Franklin Fisher 등의 이른바 Decomposability 原則이란 것을 注目할 만하다.⁽¹³⁾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한 國家의 經濟 發展 計劃을 作成함에 있어, 國外的 變數가 國內的 變數와 아무런 相互作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假定된다면——即 兩者가 「完全히 Decomposable」하다면——우리는 國內的 變數만을 따로 分離해서 分析을 해도 쓸모 있는 知識을 얻을 수 있다. 또 설명 兩 set의 變數들이 相互作用을 하는 것이더라도 兩 set間의 相互作用 關係가 한 set內 變數들間의 相互作用 關係 보다 相對的으로 弱하다면——即 「nearly decomposable」하다면——比較的 短期間 또는 制限된 範圍의 計劃을 爲해서는 위에서의 完全 decomposability 경우와 같이 取扱해도 좋다는 것이 이들의 論理이다. 여기서 比較的 短期間 또는 制限된 範圍의 計劃을 爲해서는 쓸모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分析의 對象으로 했던 部分集合(subset)內的 變數들이 除外되었든 다른 集合內的 變數들에 依해서 미쳐 影響을 받지 않을 동안 또는 그 範圍內에서는 部分 適正化(sub-optimization)가 最終的 또는 全體의 適正化를 爲한 合理的인——即 信賴할만한 知識에 依해서 뒷받침 되는——段階 區分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部分 適正化(sub-optimization)라는 것이 現實 與件에 대한 合理性의 無節制한 妥協에 그쳐서는 안되고 그 自體로서 合理的 論理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試圖이다.

이와 같은 論理에 依해서 우리는 知識 需要(knowledge requirement)의 幅 또는 量을 줄여서 얻어질 知識의 信賴度(confidence)乃至 正確度(certainty)를 높임과 同時에 그 實踐의 活用的 合理性을 確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와 같은 論理에 依할 진대, 우리들의 單面的 또는 局部的인 社會體制 計劃들도 終局的으로는 最終의 目的 達成을 爲해서 秩序 整然하게 體系지워질 수 있고 그 體系는 全體로써 結局 完全한 「知識」에 依한 合理性 判斷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確信을 갖게 된다.⁽¹⁴⁾

(3) “體系”(System)와 綜合計劃(Comprehensive Planning)

위와 같은 知識의 微視的인 正確性(punctiform certainty)의 確保로써 合理性을 높일 수 있

(13) Fisher & Ando, “Two Theorems on Ceteris Paribus in the Analysis of Dynamic Systems,” in Herbert Simon, ed., *Essays on the Structure of Social Sciences Model*, Cambridge: M.I.T. Press, 1963.

(14) Charles E. Lindblom, *The Intelligence of Democracy*, New York: Free Press, 1965, 參照.

John Friedman, “A Conceptual Model For The Analysis of Planning Behaviou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Sept., 1967, pp.230-232 參照.

(15) Jay W. Forrester, *Urban Dynamics*, Cambridge: M.I.T. Press, 1970, pp.113-114 參照.

다는 생각에 대해서 反論이 없지는 않다. 反論은 또한 여러가지 角度에서 提起되고 있다.

우선 무엇 보다도 認識論의인 批判으로서, 全體를 모르고서 部分의 正體를 確認할 수 없다고 하는 所論이 있다.⁽¹⁵⁾ 우리가 어떤 部分 또는 分子의 正體를 안다는 確信을 갖게 되는 것은 그에 앞서 그 部分 또는 分子가 屬해 있는 全體에 관한 認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발하늘에 있는 어떤 별 하나를 確認(identify)할 수 있는 것은 그 별 주변에 있는 다른 별들——即 天體——과의 關聯하에서만 可能하다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생각에 依하면 微視的 觀察의 正確性 主張은 人間의 認識作用의 基本的인 性質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現象에 관한 妥當한 知識을 얻기 爲해서는 먼저 對象되는 現象 全體를 理解(verstehende)할 수 있는 準據의 틀(frame of reference) 또는 全體的 模型(holistic model)의 構成이 앞서야 한다고 主張한다.

또 한편의 좀더 비근한 批判은 知識 探究 作業의 制度和 관련되어서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 即, 最近에 흔히 듣는 이른바 學際間 研究(interdisciplinary studies)의 必要性 主張이 그것이다. 微視的 精密性만을 追求하다 보니, 各專門 領域間의 研究方法, 術語, 問題意識등이 전혀 異質의인 것이 되어서 必要한 경우 相互間의 協同뿐만 아니라 意思交換조차도 어렵게 된 것에 對한 批判으로써이다. 이러한 學際間 研究를 主張하는 者들 中에서도 단순한 研究 作業上의 共同努力 主張에 그치지 아니 하고 좀더 根本的인——概念方法論, 術語 등의 統一 등——改革을 主張하는 者들이 現象 研究 分析을 爲한 綜合的인 思考의 틀(conceptual framework)의 構成을 試圖하고 있다. 그와 같은 試圖 가운데는 cybernetics 나, information theory 나 하는 것과 같이 屋上屋처럼 또 다른「專門分野」로 化하고 만 例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問題意識 또는 必要에서 出發되었든 間에 以上과 같은 새로운 傾向들이 暗示하는 바는 部分과 全體의 關係는 個別要素와 그 總合(agggregation)의 關係로써만 把握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個個의 部分 要素를 總合한 것이 곧 全體인 것이 아니고, 部分은 오히려 全體에 依해서 그 位置의 價値(positional value)가 주어지고 全體의 構造論理에 依해서 그 位置가 配列되어지는 것이라 한다.

即, 「全體는 部分의 合計以上の 것이다. 다시 말해서, 總合(agggregation)과 全體(whole)의 構成은 전혀 다른 次元의 過程이다.……總合에 있어서는 部分이 累積되는 것이지만, 全體에서는 部分이 한 體系로써 配列되는 것이다. 體系(system)는 部分으로 부터 導出될 수 없고, 그것은 그 안에 部分이 配置되는 獨立된 틀이다.」(밑줄은 筆者의 것)⁽¹⁶⁾

以上과 같은 認識論의인 反省은 前節에서 論及한 部分 適正化(sub-optimization)論理에 대한 反省의 基礎가 되고 있다. 即, 前節에서 說明한바와 같은 部分要素의 decomposability 테스트만으로써 部分適正化가 全體的인 合理性——適正化(optimization)——을 保障할 수 없으

(16) A. Angyal, "A: Logic of Systems", in Emery, ed., op. cit., p26.

리라는反省이다.全體體系(system)의合理性은 그全體體系目的(system objective)을確認하고 그에依해서判斷되어야 할 것이니, 그全體가운데 어느部分體系(sub-system)가 다른部分體系들에對해서 어느程度獨自性を 갖느냐는基準에依한部分的合理的의總合이全體體系的合理化를 반드시保障한다는論理가成立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反省과 함께社會體系를對象으로 하는知識의實踐的活用은 두部類의 다른接近方法으로 나누어 생각되어야 한다는主張을 듣는다.⁽¹⁷⁾ 이러한主張을 하는者들이指稱하는 이른바社會體系(social system)라고 하는 것의規模와屬性(attribute)이 모든 경우에明確하지는 않지만,大體로社會體系全體의目的과構造(structure)에 대한變動을試圖하는計劃과 그것의部分要素變動을劃策하는計劃은本質적으로 다른次元의接近方法에依해서支配되는 것이라고들 한다.計劃實際에 있어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을雄辯으로主張하고 있는例를,「計劃은體系自體의構造的設計에關與해야 한다……」는「計劃에 관한 Bellagio 宣言」(Bellagio Declaration on Planning)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以上과 같은 새로운類의計劃觀念이 우리의關心의對象이 되는 것은,上述한바와 같은 그認識論的基礎단이 아니고, 그것이計劃의論理一般에 어떤 새로운意味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章에서傳統的인部分計劃과의關係로써 다루려고 한다. 이 새로운體系計劃과傳統的인部分計劃과의關係문제야 말로 새로운計劃의一般理論定立을爲한問題意識의核心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次號承傳)

(17) Hasan Ozbekhan의 이른바 “normative planning”과 “operational planning”, Erich Jantsch의 “system design”과 “decision-making,” Amitai Etzioni 등이本質적으로 다른 두次元의知的作業임을主張하고 있는 것과 같다. Hasan Ozbekhan, “Toward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in Erich Jantsch, ed., *Perspectives of Planning*, Paris: OECD, 1969; Erich Jantsch, “From Forecasting and Planning to Policy Sciences”, *Policy Sciences*, Vol. I, 1970; Amitai Etzioni, *op. cit.*, pp. 254-263.